

치주염(齒周炎)이란?

치주염이란?

치주염(齒周炎)이라 함은 치아를 밀받침하고 있는 치조골(齒槽骨)이 파괴되어 치아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병을 말하는데 치조농루(齒槽膿漏)라고도 한다. 또 치아와 치조골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치육=잇몸)이 치아의 주위에 붙어 있는 여러가지 세균이 뱉어 내는 독(毒)때문에 침해를 받아 색깔이 검붉어 지고 상처에서 고름(膿)을 내는 병을 치육염(齒肉炎)이라고 한다. 이 치육염을 그대로 두면 치주염이 되는데 이를 합하여 치주질환(齒周疾患)이라 부른다.

우리들의 건강한 치아는 에나멜질+상아질+치수(齒髓)+시멘트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치육(齒肉)과 치근막(齒根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치조골의 받침을 받고 있다. 그런데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치육과 치조골이 세균의 침해를 받아 상하게 되면

치육은 물러져서 허물어지고 잇몸과 치아사이가 벌어지게 되며 치조골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아가 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치아를 뽑아 버릴 수 밖에 없다.

치주염의 증상

치주염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은 9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잇몸(치육)의 색이 붉어 지면서 때때로 아프다.
- ② 잇몸이 근질근질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 ③ 치아를 닦으면 치술에 피가 묻어 난다.
- ④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옆사람들이 말하고 자기도 그런 냄새를 느낄 수가 있다.
- ⑤ 치아사이에 음식물이 끼인다.
- ⑥ 치아가 흔들흔들하여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다.
- ⑦ 잇몸(치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온다.

⑧ 턱이나 귀쪽이 때때로 아프고 피로감이 있다.

⑨ 치아의 배열이 틀락날락 나빠졌다.

이런 증상이 오래 계속되면 결국 치아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이런 증상 때문에 생기는 부담은 위장병이나 위암, 심장병, 두통 등을 가져 올 수도 있어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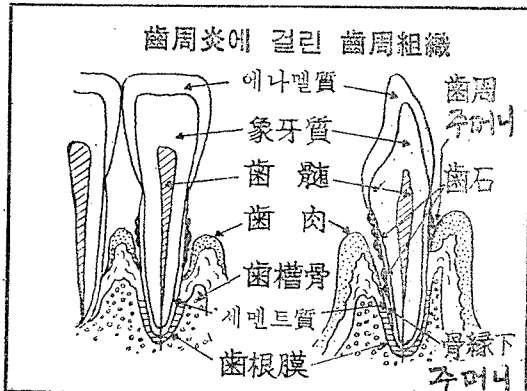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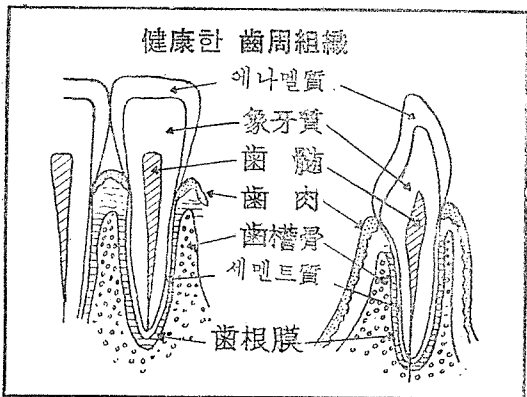
치주염의 원인

그러면 치주염(齒周炎)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 보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입안의 상태에 의한 원인이다.

치아의 주위에 붙어 있는 얇은 막(膜) 같은 물질을 치후(齒垢—이물질)라 하는데 보통 황갈색을 띠고 있는 투명체이다. 이 치후는 대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아의 주변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입안의 세균은 크게 번식하여 증가한다. 이들 세균에서 나온 독소나 자극이 치육이나 치조골을 침식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아래, 위에서 28개의 치아가 바르게 교합(咬合)해야 하는데 일부의 치아가 어긋나 있으면 그치아는 부담을 많이 받아 치조골이 상하게 된다.

치아와 치아사이에 낀 음식물을 그대로 두는데서 생기는 치조골의 침식은 특히 섬유성음식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병이 있어 입을 열고 숨을 쉬는 사람,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 혀끝으로 치아를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버릇이 있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아래 위치아를 깨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치주염에 걸리기 쉬운 것이다.

두번째는 먹는 음식이나 영양에 의한 원인이다. 편식(偏食)을 하지 않은 이상 영양이 부족하여 치주염에 걸리는 일은 적지만 채소나 단백질이 심하게 부족하면 이병에 걸리기 쉽다.

치아에 붙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물이나 단 과자류를 자주 먹는 사람도 치주염에 걸리기 쉽다. 특히 설탕이 들어 있는 과자류를 먹으면 세균은 이 설탕을 영양으로 삼아 끈적끈적한 물질을 내뿜어 치후(이뿜)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이 때문에 치아가 더러워지고 잇몸(치육)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

그 다음 세번째로 전신적(全身的)인 원인이다. 전신적으로 중한 질환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다. 혈액결핵에 의한 선천성치육증식증(先天性齒肉增殖症)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치육침식현상은 소홀히 다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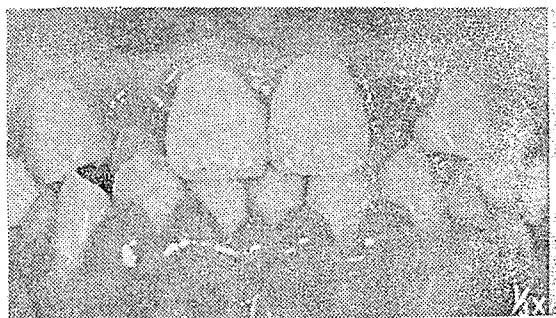
는 없을 것이다.

치주염의 특징

치주염은 처음부터 심하게 아프거나 갑자기 붓거나 조직을 파괴하는 병이 아니다. 또 암(癌)처럼 악성질화한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다. 충치의 경우는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가 있으나 치주염은 증상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타나면



<치육염(齒肉炎)의 모습>



<치주염(齒周炎)의 모습>

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다.

치주염 때문에 잃는 치아의 수는 충치에 못지 않을 정도로 많으며 이 두가지가 전체 치아 상실수의 9할을 차지하고 있다.

치주염의 선형질환인 치육염은 4세경부터 갑자기 증가하여 50% 정도에 이르고 11세에 95%, 13세에 80%를 보여 주다가 35세 전후해서 대부

분은 치주염으로 변해 버린다.

치주염은 22세부터 갑자기 증가하여 70%에 이르고 30세에는 80%, 45세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여 줄 정도에 이르고 특히 구강위생(口腔衛生)관념이 낮은 국민일수록 중증환자가 많게 된다.

치아를 뽑아 내고 의치(義齒)를 넣으면 부모한테 받은 치아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치아는 일생동안 간직하도록 치료와 예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치주염의 예방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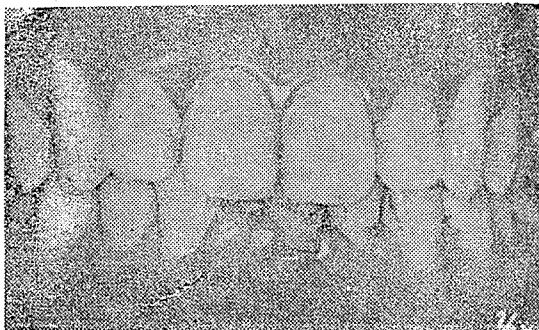
예전에는 치료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치주염을 불치병인 듯이 생각한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기발견 하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고 또 예방이나 근본적인 치료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

먼저 환자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요법을 살펴 보자.

치솔등을 사용하여 식사한 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를-



<17세 소녀의 초기구강침해>



<위 소녀의 치료 2개월후 모습>

닦는 것이다. 식사후에 이를 닦지 않으면 이를 닦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여러가지 치료법이 발달하였으나 환자가 가정에서 식사후에 이를 닦지 않는다면 어떠한 치료법도 나무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치아를 바르게 닦는 습관이 붙으면 치아의 주위에 붙어 있는 치석(齒石)을 때 내어야 한다. 치석은 오래된 치후(이뿔)가 석회화하여 돌처럼 굳어져 치아 주위에 붙어 있는 것이다.

아래치아의 안쪽이나 위쪽치아의 구석에 많이 생긴다. 치석은 1년에 1~2회 정도 치과의사에게 부탁해서 떼어 내야한다. 가벼운 치주염은 이를 잘 닦고 치석을 깨끗이 떼어 내면 거의 낫는다.

중증도의 치주염에 대한 치료는 입원하지 않고 치육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고정시키고 교합(咬合)이 잘 안되는 것은 조절을 해서 잘 씹히도록 고친다.

또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도 치료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이를 가는 버릇이나 입을 벌리는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치주염의 예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사때마다 될 수 있는대로 빨리 3~5분 동안 바르게 이를 닦으면 2~3주동안에 효과가 나타나다.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나 신경쓰지 말고 계속 한다.

치솔은 되도록 작으면서도 털이 길고 단단한 것이 좋다. 이를 닦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간단한 것은 로링법이다. 한곳을 열번이상씩 아래, 위안쪽, 바깥쪽을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치솔을 힘차게 돌려야 한다.

그리고 치솔을 치아와 치아사이에 넣는 것처럼하여 몇초동안 흔든다. 치솔은 딱딱한 것을 사용해도 치아가 마손(磨損)되지 않는다.

